

물놀이 안전 수칙

어린이 안전수칙



- 1. 보호자가 즉각 구조 가능한 위치에서 물놀이하기
※ 아이 혼자 두지 않기



- 2.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 사용은 금물
※ 뒤집힐 경우,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음



- 3. 물놀이 전 안전교육 철저
※ 준비물, 준비운동 등

일반 안전수칙



- 1.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시기
(다리 → 팔 → 얼굴 → 가슴)



- 2.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 착용



- 3.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, 배가 고플 때, 특히 음주 후 수영 금지

물놀이 사고 기억해 두기

1. 복부, 등 누르지 않기



- 물을 빼내기 위해 복부나 등을 절대 누르지 않기
※ 사고자의 위 속에 있는 물과 음식물을 오히려 역류시켜 기도를 막을 수 있음

2. 수심이 얕아보여도 방심은 금물



- 물의 깊이는 항상 일정하지 않음
※ 얕은 물이라도 갑자기 깊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

본 행동요령은 재난유형별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동일한 재난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행동요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면 더욱 안전해요

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

물놀이 안전사고



사고사례

• 무주군 일가족 3명 물놀이 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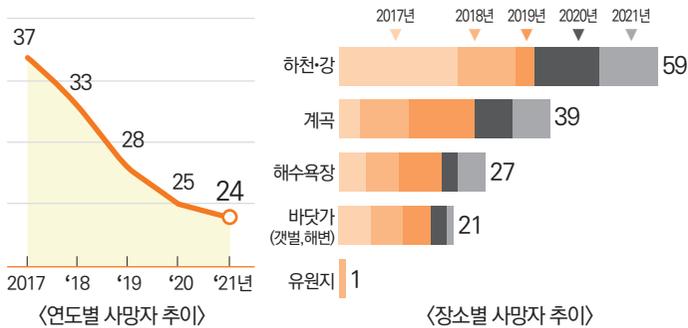
일시	'22년 7월 27일 16시 경	
피해현황	사망 3명	
사건개요	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모두 익사	

• 삼척 덕산해수욕장 물놀이 사고

일시	'19년 7월 13일 17시 경	
피해현황	사망 2명	
사건개요	해수욕장 파도에 휩쓸려 익사	

사고 현황 및 주요 원인

전국 사고 통계(최근 5년간, '17년~'21년)



• 계곡 및 하천·강 물놀이 사망자 비율 66.6%

- 여름철 피서지(계곡 및 강 등)에서 물놀이 사고 주로 발생

물놀이 안전사고 주요 원인

- 수영 미숙, 구명조끼 미착용 등 부주의
- 음주수영, 기구 전복, 급류에 의한 사고 등

물놀이 시설 인명 구조함

	구명환	물에 빠진 사람의 몸을 물 위에 뜨게 하는 기구
	구명 조끼	물에 빠져도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해상·수상용 조끼
	드로우 백	로프가 필요한 인명구조 시 사용하는 구조장비
	페트병	물을 조금 넣고 끈을 묶어 물에 빠진 사람에 던지기

구명조끼 착용 방법



체중·용도에 맞는 구명조끼 선택



버클을 채우고 다리끈 고정



턱 위로 올라가지 않게 착용



구명조끼는 생명조끼임을 명심

물놀이 사고 국민행동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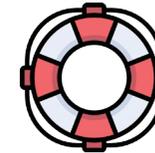
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



1. 큰소리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



2. 구조하기 위해 물속에 들어가지 않기
※ 수영에 자신 있더라도 인명구조 물품을 활용하여 구조



3. 구명환 이용하기
※ 없을 시 페트병 등에 긴 줄을 묶어 던지기

4.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였을 때
※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시

물에 빠졌을 때



1. 당황하지 않기
※ 몸부림 치는 움직임을 최소화



2. 물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며 비스듬히 헤엄쳐 나오기



3. 엎드린 상태에서 고개 들고 호흡하기
※ 옷이나 신발 등 벗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고 헤엄쳐 나오기